

금속노조, 교섭결렬·쟁의조정신청

5~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7월 하순 10만여 명 쟁의권 확보·1차 총파업

금속노조가 2021년 중앙교섭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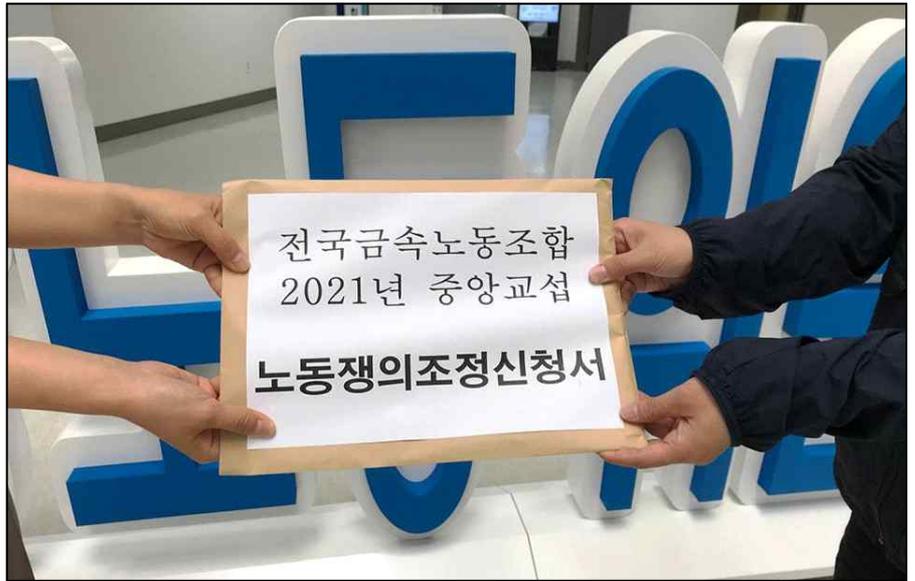
노조는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대각선교섭에 대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노조는 7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교섭사업장 65개와 지부 집단교섭 등 173개 단위에 관해 일괄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6월 30일 접수한 현대자동차지부 등 조기 조정신청 단위를 포함하면 193개 단위 85,279명이 쟁의조정신청을 마쳤다.

노조는 7월 하순에 이번 조정신청 단위와 이번 주 쟁의조정신청 예정인 한국지엠지부 등을 포함해 103,000여 명이 쟁의권을 확보하고, 1차 지역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6월 22일 10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약회가 기존 제시안마저 부정하며, 일괄제시안을 내지 않아 교섭을 결렬한다”라고 선언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의 요구 전문을 베껴 제시안을 만들고, 산업전환협약 내용을 노사공동위에서 다루자는 등 노조 요구의 근본 취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속산업최저임금 요구에 대해 10원도 인상안을 내지 않고, 적용 범위를 사외 하청노동자까지 늘리자는 요구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교섭 통일요구로 ‘산업전환협약’을 내세웠다.

협약은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노동자 고용안정, 양질의 일

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노사 공동결정을 통해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함께 설계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구체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공동으로 결정·집행·점검할 체계와 운영방안을 2021년 말까지 결정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가동하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앙교섭 요구로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을 요구했다.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통상시급 10,000원과 월 통상임금 2,260,000원 중 높은 금액 적용과 적용 범위를 사외 하청노동자까지 확대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뽑았던 칼 그대로 칼집에 넣은 적 없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 끝장 투쟁 선포 ... “안경덕 장관, 노동부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금속노조가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7월 1일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장을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세종시 노동부로 앞으로 옮겼다.

공단 본부 농성투쟁 돌입 85일 만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같은 요구를 걸고 50일째 투쟁을 벌여왔다.

노조는 1일 오전 농성장 설치와 노동부 출근선전전을 마치고,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금속노조 고용노동부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노동부가 산재처리 지연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자본과 사업주들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안경덕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금속노조 농성투쟁 85일은 산재처리에 녀 달, 다섯 달, 심지어 여섯 달이 걸리는 현실에 비하면 작은 숫자일지도 모른다”라며 현장의 심각한 산재처리 지연 실태를 알렸다.

김호규 위원장은 “안경덕 노동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었듯이, 민주노총·금속노조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촉구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한국이 법치국가라면서 노동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 산재보상법에 명시한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며, 정부 부처로서 의무와 역할을 내팽개치고 핑계로 일관하는 정부 기관을 질타했다.

박세민 실장은 “노조는 일하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짓밟는 노동부의 작태를 꾸짖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거리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뽑았던 칼을 그대로 칼집에 넣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금속노조 19만이 14만 명의 산재 노동자 염원을 받아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까지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금속노조는 노동부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점심 선전전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농성 중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 등 실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법개정
국민입법 청원
바로가기**



**공동결정법
국민입법 청원
바로가기**

